

# 39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봄날의 산기슭, 탐욕스러운 아버지와 이에 순종하며 동생들을 보살피는 장남, 아버지의 강요로 밭일에 얽매인 차남부터 육남까지의 아들들, 막내가 살고 있다. 장남은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는 이에 동의한다. 한편 차남부터 육남까지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운다.

**[9장]**

(전략)

장 남: 아버지한테 직접 들어 봐. (아버지에게) 아가 약속하셨던 걸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그게 뭐네?  
 장 남: 제 등에 업혀서 하셨던 약속을요.  
 삼 남: (부엌에서 쟁반 위에 대접 두 개를 받쳐 들고 나온다.) 이걸 봐! 백운사 스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잘됐지? (아버지 앞에서 대접을 가리키며) 이걸 마실 거구요, 또 이걸 받으실 겁니다.  
 장 남: 아버지, 땅을 나눠 주신다구 다짐하세요.  
 아버지: (대접을 들고서 장남을 밀쳐 내며) 아, 그건 내가 젊어진 뒤 다짐해도 늦진 않아.  
 자식들: 저걸 봐. 저러니깐 믿을 수 없지!  
 아버지: (대접에 든 것을 마신다.)  
 차 남: 다음은 송진을 얼굴에 바르세요.  
 장 남: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아, 아버지.....  
 아버지: (장남을 다시 밀쳐내며) 비키라니깐! (송진 대접에 두 손을 담가서 얼굴에 바른다.) 이렇게 하면 된다더냐?  
 차 남: 네. 얼굴에 골고루 바르세요.  
 아버지: (더 바르며) 골고루 잘 발라졌느냐?  
 차 남: 눈가에 주름살이 잔뜩 있네요. 눈을 감고 많이 바르세요.  
 아버지: (눈을 감고 그 위에 송진을 바른다.) 이젠 허물을 벗었으면 좋겠다.  
 차 남: 조금만요, 조금만. 송진이 식어야 벗겨 내지요.  
 아버지: (손을 부채처럼 펴서 얼굴에 부치며) 빨리 식어라! 빨리 식어!  
 자식들: (아버지를 붙잡고 땀을 그리며) 빨리 식어라! 빨리 식어!  
 아버지: (땀을 툇다가 넘어진다.) 아이구, 어지러워!  
 차 남: 식어서 굳었는지 눈을 떠 보세요.  
 아버지: 송진이 다 굳었다. 눈이 붙어서 안 떠져.  
 차 남: 아, 그럼 됐어요! (자식들에게) 아버지 눈이 안 떠진단다! 곡괭이를 들고 가서 아버지 방 밑 향아리들을 파내라!  
 자식들: (준비해 뒀던 곡괭이를 들고 아버지 방으로 몰려가 파묻힌 향아리를 파낸다.)  
 아버지: (허공을 더듬으며 고향을 지른다.)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내 눈이 안 보여!  
 자식들: (향아리들을 파내 마당으로 나와서 자루에 돈을 담으며) 돈을 봐라! 이 돈을 봐!  
 아버지: 이놈들아, 내 돈이다! 내 돈 내와라!  
 자식들: (돈 자루를 들고서 문밖으로 달려 나간다.)  
 차 남: (장남에게) 형님께겐 미안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 우린 이 돈 갖고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했어.  
 아버지: (허공에 두 손을 내저으며) 내 돈, 내 돈, 내 돈 내와라! 내 눈, 내 눈이 안 보여!

차 남: 아버지 눈은 더운물로 씻어 드려. 그럼 송진이 녹아서 눈을 뜰 수 있으니깐. 형님, 잘 있어.  
 막 내: (방문을 열고 뒷마루에 나온다.)  
 차 남: 막내야, 너도 몸조심하고 잘 있어. 아 참,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렴. 너 좋아하는 그 계집애, 무서워 떨고 있더라.

(무대 전면. 자식들이 편지를 읽는다.)

차 남: 아버지 전상서.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옥체 금안하시고, 어머니 같던 큰형님, 언제나 몸이 약했던 막내 동생도 잘 있는지요? 이젠 고향에서 보낸 그 봄날이 아스란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 봄날에, 저희 자식들은 왜 그렇게 조금했었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인색하셨는지, 꼭 꿈을 꾸고 난 것만 같습니다. 언젠가 꽃피는 봄이 되면 자식들과 더불어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오니, 안녕히 계십시오.  
 삼남, 사남, 오남, 육남 차례로: 이하 동문.  
 차 남: 고향집을 떠난 사람이면 그 누구나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마음속의 생각일 뿐, 한 번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10장]**

봄이 다 지나간 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의 대낮, 쇠약한 모습의 아버지가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물고래미 먼 곳을 바라보며 부채질을 하고 있다. 마당 우물에서는 동녀가 빨래를 하고 있다. 뒤뜰에서 매미의 울음소리가 흐드러지게 들려온다. 동녀, 빨래를 마당 가운데 매어 있는 빨랫줄에 낸다. 소매를 걷어붙인 두 팔목이 시리도록 희다.

아버지: 몹시..... 덥구나...... (사이) 부채질을 해도 더운 바람만 나구...... (사이) 애야, 너의 큰아주버니 어디 갔냐?  
 동 녀: 네. 아주버님은 하지감자 캐러 밭에 가셨어요.  
 아버지: 벌써..... 하지감자 캐 때가 되었구나...... 하기는..... 매미가 극성맞게..... 우는..... 때니깐...... (사이) 막내는? 네 남편은 어디 갔냐?  
 동 녀: 살구 따라 갔어요.  
 아버지: 살구 따라?  
 동 녀: 네. 제가 신 것을 먹구 싶다구 했더니요......  
 아버지: 네가 신 것을 먹구 싶어?  
 동 녀: (부끄러워하며) 네......  
 아버지: 부끄러워할 것 없다. 애를 가지면 자꾸만 신 것이 입에 당기는 거니깐...... (사이) 내 자식이..... 또 다음 자식을..... 볼 때가 됐지. 자꾸만..... 후회가 된다......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을......

(후략)

- 이강백, 「봄날」 -

1. 윗글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은?

- ① '장남'은 땅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 ② '차남'은 '장남'이 '아버지'의 편을 들어 왔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원망을 표출했다.
- ③ '삼남'은 '백운사 스님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아버지'에게 권했다.
- ④ '자식들'은 '아버지'가 '장남'에게 한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⑤ '자식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도 '장남'과 '막내'는 '동녀'와 함께 쇠약해진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 나타나는 부자(父子) 간의 갈등은 그리스·로마 신화를 비롯한 수많은 서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세대교체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아버지 세대’는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유지하려 하지만, ‘아들 세대’는 ‘아버지 세대’에 도전하여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려 한다. 이 작품의 제목인 ‘봄날’은 이러한 세대교체의 과정이 순환되는 계절의 흐름과 닮아 있음을 암시한다.

- ① 재산을 독점하고 ‘자식들’에게 말일을 시키는 ‘아버지’는 ‘차남’을 비롯한 ‘자식들’에게 도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젊어지고자 하는 ‘아버지’의 욕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아버지’와 ‘자식들’간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③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라는 ‘차남’의 대사는 세대교체의 과정에서 유발된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한 후회를 드러낸다.
- ④ 여름날의 대청마루에 걸터앉은 ‘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은 일련의 갈등 과정 이후 자신이 지녔던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기존 세대를 표상한다.
- ⑤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대사에서, 세대가 교체되는 과정의 속성을 깨닫고 이에 순응하게 되는 ‘아버지’의 자각을 확인할 수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무대 중앙 뒷후면 ㉡: 무대 전면 ㉢: 객석	윗글로 보아, 무대는 원편의 그림과 같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는 9, 10장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에서의 내용은 ㉠ 혹은 ㉢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	--

- ① ㉠에 등장하는 인물과 ㉡에 등장하는 인물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배경에 위치하고 있다.
- ② ㉡에서의 ‘차남’의 발화는 ㉢의 관객을 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③ ㉡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은 ㉠에서 진행된 ‘[9장]’의 사건에 대한 ‘차남’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④ ㉡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은 ㉢에 있는 관객의 공감을 유도하여 ㉠에서 진행되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 ⑤ ㉡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아버지’에 대한 ‘차남’의 태도가 ㉠에서와는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늦가을의 어느 날 저녁 무렵, 천 씨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온다. 사내는 주막집 눈 먼 여자에게 소리를 해달라고 한다.

소리가 마을로 들어서던 그 한여름이 지나가고 해가 훌쩍 뒤바뀌고 난 이듬해 이른 여름의 어느 날 밤, 소년의 어머니는 땅덩이가 꺼져 내려앉는 듯한 길고도 무서운 복통 끝에 흡사 핏속에서 쏟아내듯 작은 살덩이 계집아이 형상 하나를 낳아놓고는 그날 새벽으로 그만 영영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던 다음 날 아침에야 비로소 소리의 사내가 그 후줄근한 모습을 드러내며 소년의 집 사립문을 들어서던 것이었다.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그 소리를 하던 남자, 그러니까 내겐 아마 의붓아버지가 되었을 뻔한 그 사내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아가는 수가 없게 됐제. 그래서 끝내는 애 어미되는 사람의 무덤을 만든 뒤에 그 길로 곧 핏덩이 싸 들고 마을을 떠나고 말았대네!”

사내는 이제 남의 얘기라도 하듯이 담담한 얼굴이 되어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아직도 그때의 그 사내의 얼굴이 소리의 진짜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소년에겐 여전히 그 뜨거운 햇덩이가 소리의 진짜 얼굴로 남아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달라져버린 소리의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이 고을 저 고을로 소리를 하며 밥 구걸을 다니고 있었을 때도, 소리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그 뜨겁게 이글거리는 햇덩이 쪽이었다.

피롭고 고통스런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사내는 그 고통스런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었다. 머리 위에 햇덩이가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으면 그의 육신과 영혼이 속절없이 맥을 놓고 늘어졌다. 그는 그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날 이때까지 반생을 지내온 숙명의 태양이요, 소리의 얼굴이었다.

“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대개 짐작이 가겠네마는, 어쨌거나 나는 그런저런 내력으로 이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그 누추한 어릴 적 기억을 버리지 못해 이런 청승맞은 소리 비렁뱅이질을 계속하고 다니는 꼴이라네. 소리를 들으면 어렸을 적에 그 발두렁가에 누워 보던 바다 비늘이 아슴아슴 떠오르고 골짜기 숲으로부터 복더위를 씻어가던 한 줄기 바람결이 내 얼굴을 지나가고…… 아니 그보다도 나는 소리만 들으면 그 이마 위에서 무겁게 들끓고 있던 여름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되곤 하니 말이네. 그런데 말이네, 그런데 난 오늘 밤 자네한테서 내 눈썹을 불태울 것 같은 그 뜨거운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된 것일세. 자네처럼 뜨거운 내 햇덩이를 품은 소리를 만난 일이 없는 것 같단 말일세…… 이제 내가 이토록 자네 소리에 끌리는 까닭을 알겠는가……”

사내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마치 아직도 그 들끓는 태양벌을 머리 위에 건디고 있는 듯이 얼굴을 심히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

(중략)

“하지만 자네한테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쨌밤 손님 그 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보아하니 자네나 손님이나 양쪽 다 그런 일은 입에도 올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 천 씨가 아직도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도 전혀 목소리가 흐트러지는 기색이 없었다.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벌써 손님을 처음 대했을 때 부터 들기 시작했소.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라버니 소리가 목에까지 솟아오를 뻔한 것은 복채를 손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의 장단을 만났을 때였답니다. 오라비의 숨씨는 옛날의 제 아버 되는 노인의 숨씨 그 대로였소.”

“그렇다면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도 그뻔 자넬 알아보고 있었을 게 아닌가.”

“알아보았겠지요. 절 알고 여기까지 길을 찾아오신 건지도 모르지요. 모르고 오셨더라도 그 양반 장단을 놀아 나가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요.”

“그렇다면 글썸……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떠나가고 말았던 말인가.”

“그것은 아마 오라비가 또 날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요.”

“오라비가 자넬 죽이고 싶어 하다니?”

사내의 두 눈이 다시 크게 벌어졌다.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답니다. 당신은 늘 소리를 할 때 오라비 눈에 살기가 도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당신이 소리를 하면 오라비는 이상스럽게 눈빛이 더워지면서 당신을 해치고 싶어 못 견뎌 하더랍니다. 오라비가 싫은 짓을 참아가면서도 의붓아버리를 따라 다닌 것은 그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 작심하고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 노인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원수를 갚으라고 오라비 앞에 더욱 힘이 뻗치게 목청을 돋워대곤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오라비는 결국 원수를 갚기는커녕 당신 편에서 먼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어젯밤엔 저도 소리를 하면서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가 완연하게 느껴져 오더구만요. 오라비 그걸 무슨 헛당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살기였을 게라요. 오라비가 그 헛당이 때문에 이마가 뜨거울 때 당신은 살기가 일고 있었던 것이요.”

“사내는 그럼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를 느끼면서도 무슨 정성으로 밤새껏 그리 목청을 뽐냈던가? 오라비 살기가 부풀어 끝장이라도 나고 싶었던가 말이네.”

“…….”

“그리고 또 자네 오라비란 사람도 그런 살기가 들었다면 어째서 끝내 자네를 해치지 못하고 말도 없이 문을 나갔겠는가 말이네.”

“그야 오라비는 옛날에도 노인을 해치진 못했지요. 노인을 해치고 싶어 했다 뿐, 소리 때문에 외려 당신 쪽에서 몸을 피해 달아난 위인이었다지 않습니까. 오라버닌 제 소리에 살기가 일었을지 모르지만, 제 소리 때문에 또 당신 쪽에서 먼저 몸을 피해가신 것입네다.”

“그걸 자네 오라비도 알았을까. 그 오라비한테도 자네가 이미 오라비를 그토록 알아보고 있는 눈치를 말이네.”

“소리가 어우러져 나가면서 오라버니도 죽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요.”

“…….”

틈을 주지 않고 물어대던 사내가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 이청준, 「소리의 빛」 -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③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과거의 사연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중립적 위치에 서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다른 기억을 대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5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천 씨’는 ‘여자’를 찾아온 ‘사내(오라비)’를 보고, 그가 ‘여자’의 오빠임을 알았다.
- ② ‘여자’와 ‘사내(오라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고 헤어졌다.
- ③ ‘사내(오라비)’가 찾아온 날 밤, ‘여자’는 그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를 했다.
- ④ ‘여자’는 출생 직후 어머니 없이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 ⑤ ‘천 씨’는 ‘여자’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사내’는 누이와 함께 ‘의붓아버지(노인)’를 따라다니다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한다. 그러나 그는 운명적으로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예술(가)의 길’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며, 그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소리’와 ‘헛당’은 이와 같은 예술가의 길과 관련이 있는 상징적 이미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① ‘사내’가 ‘여자’에게서 ‘뜨거운 헛당’을 보았다고 했음에도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술의 길이 끝이 없는 과정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사내’가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에게 ‘살기’를 품었음에도 결국 해치지 못한 것은, 그가 예술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사내’가 버리고 살 수 없는 ‘소리’가 ‘고통스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술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사내’가 ‘여자’에게 보여 준 장단의 숨씨가 옛날의 노인의 숨씨 그대로였다는 것은, ‘사내’가 ‘헛당’으로 상징되는 ‘소리’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사내’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쳤음에도 끊임없이 ‘소리의 진짜 얼굴’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가 예술가의 길을 ‘숙명’으로 여기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우리에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떡파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훤히 가르마 냈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아이 세상에 눈떴지요 ..... ㉠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늙은 나뭇에 없었지요

대길이 아저씨한테는  
 주인도 동네 어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 올라가서  
 홀적삼 치켜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지갯작대기 뉘어놓고 먼 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 ㉡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리는 듯하였지요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거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긴 불빛이었지요  
 - 고은, 「머슴 대길이」 -

(나)

사랑방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은 텃도지가 밀려 잔뜩 주눅이 든 허리 굽은 새우젓 장수다.  
 건넌방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금광 덕대를 하는 삼촌에다 금방앗간을 하는 금이빨이 자랑인 두집담 주인과 어울려  
 머리를 맞대고 하루 종일 무슨 주관질이다.  
 할머니는 헛간에서 국수틀을 돌리시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재봉틀을 돌리신다.  
 찌걱찌걱찌걱..... 할머니는 일이 힘들어 불이 부우셨고,  
 돌돌돌돌..... 어머니는 기계 바느질이 즐거워 입을 병긋대신다.  
 나는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을 오가며 딱지를 치고 구슬 장난을 한다.

중원군 노은면 연하리 470, 충주시 역전동 477의 49,

혹은 안양시 비산동 489의 43,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27의 29.

이렇게 옮겨 살아도 이 틀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아버지는 건넌방에, 할머니는 헛간에 어머니는 안방에 계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외지로 떠돈 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으리.  
 어찌랴, 바다를 건너 딴 나라도 가고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  
 저승에 가도 이 틀 속에서 살 것인가, 나는 그것이 싫지만.

어느새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는 나의 이 집이 좋아졌다.  
 사랑방과 건넌방과 헛간과 안방을 오가면서  
 철없는 아이가 되어 딱지를 치고 구슬 장난을 하면서  
 나는 더없이 행복하다, 이 그림 속에서.  
 - 신경림, 「즐거운 나의 집」 -

7.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 ㉡ 화자가 소망하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 대화체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 ㉣ 일상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8.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대길이 아저씨'에게 한글을 배워 세상에 대해 알아 갈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 ㉡: '대길이 아저씨'가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는 태도가 공동체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 ㉢ ㉢: '대길이 아저씨'가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의 공간으로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 ㉣ ㉣: 이기적인 삶을 멀리하고자 했던 '대길이 아저씨'의 가치관이 화자에게도 전달되었음을 보여 준다.
- ㉤ ㉤: '대길이 아저씨'가 화자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아 변함없이 화자의 삶을 이끌어주었음을 보여 준다.

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인간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집'에 대해 본원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 이곳은 자신을 감싸주던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근원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성장하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 결국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집'을 떠나게 된다. 그렇지만 인간은 언젠가 그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원적인 애착이 그려낸 기억의 '그림'이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 ①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을 오가며' 놀이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가족들이 감싸주는 공간에서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낸 화자를 떠오르게 하는군.
- ② '이 그림 속'에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한 것은 가족들과 함께 한 유년의 따뜻했던 기억의 '그림'이 화자에게 본원적인 애착을 유발하기 때문이겠군.
- ③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려서부터 외지로 떠돈 것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화자가 이끌렸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라고 한 것은 화자가 '나의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겠군.
- ⑤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는 화자가 '이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겠군.

[10~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전 소설에 널리 이용되어 온 '기이성(奇異性)'은 새롭고 낯선 것에서 느껴지는 성질로서, 당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 기이성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 형성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현실성이다. 비현실성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초경험적이고 환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이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또한 인물의 극단적인 성격이나 사건의 극적인 전개도 기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전 소설에서는 아름다움, 추함, 선함, 악함, 효심, 충성심 등과 같은 인물의 성격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헤어짐에서 만남으로, 가난에서 부귀로, 위험에서 평온으로 등과 같이 사건의 전개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히 나타난다. 이외에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이국정취 등도 기이성 형성의 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품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이성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이성도 소설의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 구현되는 양상이 달라지는데, 비현실성이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아직도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던 17세기의 소설에서는 비현실성이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교계 국문소설과 전기 소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현실의 논리 같은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초현실적 존재가 현실계나 환상계에서 활약하는 것을 극대화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전기 소설의 하나인 「금령전」에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하지만 18세기에 이르면, 합리적 사고와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초기 소설이 가지고 있던 비현실성은 점차 희석되고 현실성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리고 비현실성과 현실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이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경험 세계

인 현실계와 초경험 세계인 환상계가 개별적인 독립성과 함께 상호 유기성을 갖는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계에서 일어나는 비현실성의 근거를 환상계에 귀속시킴으로써 독자들이 큰 저항 없이 비현실성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적당형 영웅 소설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민중적인 가치를 담아 발전해 간 판소리계 소설은 현실적인 요소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흥부전」, 「심청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물의 극단적인 성격과 사건의 극적인 전개 등은 여전히 기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 환상계가 현실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계질서를 갖추게 됨으로써,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되는 비현실성이 사건의 극적인 전개에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나)

차설. 해룡이 번씨 집을 떠나 남쪽으로 가는데 한 곳에 다다르니 큰 산이 앞길을 막았거늘, 갈 길을 못 찾아 주저할 즈음에 금령(金鈴)\*이 굴러 길을 인도하였다. 금령을 따라 여러 고개를 넘어가니 절벽 사이에 푸른 잔디와 암석이 바라보이며, 해룡이 들 위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는데, ㉡ 문득 벽력같은 소리가 진동하며 금털 돌친 짐승이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해룡을 물려고 하였다. 해룡이 급히 피하려 하였는데 금령이 내달아 막으니, 그것이 몸을 흔들어 변하여 아홉 머리 가진 것이 되어 금령을 집어삼키고 골짜기로 들어갔다.

해룡이 낙담하며 말하기를,

“분명코 금령이 죽었도다.”

하고, 탄식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갑자기 한바탕 미친 듯한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 속에서 크게 불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금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다지 방황하느냐?”

하고, 간 데 없었다.

해룡이 생각하되, ‘하늘이 가르치시나 몸에 촌철(寸鐵)이 없으니 어찌 대적하리오?’ 그러나 금령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어찌 살아났으리오?’ 하고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뛰어 들어가니,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다. 몇 리를 들어가되 종적이 없거늘, 죽을힘을 다하여 기어 들어가니 ㉢ 홀연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조요하였다. 두루 살펴보니 돌 비석에 금자로 새겼으니, ‘남진산 봉래동’이라 하였고, 구름 같은 석교에 만장폭포가 거룩하였다. 거기를 지나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여니 동중에 주공패켈\*과 내성 외곽이 은은히 비거늘, 자세히 본즉 문 위에 금자로 크게, ‘금선수도부’라 써어 있었다.

(중략)

해룡이 뛰어 올라가 보니, 그 짐승이 상 위에 누워 앓다가 사람을 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자빠지며 일신을 뒤틀며 움직이지 못하고 입으로 피를 무수히 토하였다. 해룡이 하수하고 자\* 하나 손에 촌철이 없었는데, 홀연 미인 한 사람이 철보홍군을 입고 가볍게 걸어서 벽에 걸린 보검을 갖다가 해룡에게 주었다. 해룡이 급히 칼을 들고 달려들어 요귀의 가슴을 무수히 찌르니, 그 짐승이 그제야 죽어 늘어졌다. 자세히 보니 금터럭 돌친 암돼지이거늘, 가슴을 헤치고 보니 금령이 굴러 나왔다. 해룡이 크게 반기며 소리 질러 말하기를,

“너희 수십인 계집이 다 요귀로 변하여 사람을 속임이 아니냐?”

모든 여자들이 일시에 꽃이 아뢰기를,  
 “우리들은 요귀가 아니오. 사람으로서 요귀에게 잡혀 와 욕을 참고 사환하였나이다. 아까 칼 갖다 주던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천자의 외동딸 금선 공주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주가 슬픈 기색으로 나와 사례하기를,  
 “나는 과연 공주러니, 6년 전에 모후 낭낭을 피시고 후원에서 달구경을 하다가 이 요귀에게 잡혀 와 시녀들이 밤낮으로 지키는 까닭으로 지금까지 욕을 참고 살았었습니다. 천행으로 그대의 구함을 입어 고국에 돌아가 부모를 만나 보고 죽게 되니 다시 한이 없을까 합니다.”  
 하며 소매로 낫을 가리고 통곡하였다.

- 작자 미상, 「금령전」 -

- \* 금령 : 금방울.
- \* 주궁패궐 : 진주나 조개 따위의 보석으로 호화찬란하게 꾸민 궁궐.
- \* 하수하고자 : 손을 대어 죽이고자.

(다)

하루는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B  
 “심 소저 혼약할 기한이 가까우니, 인당수로 돌려보내어 좋은 때를 잃지 말게 하라.”

분부가 지엄하시니 사해용왕이 명을 듣고 심 소저를 보내실 제, 큰 꽃송이에 넣고 두 시녀를 곁에서 모시게 하여 아침저녁 먹을 것과 비단 보배를 많이 넣고 옥 화분에 고이 담아 인당수로 보내었다. 이때 사해용왕이 친히 나와 전송하고 각궁 시녀와 여덟 선녀가 여쭙기를,

“소저는 인간 세상에 나아가서 부귀와 영광으로 만만세를 즐기소서.”

소저 대답하기를,

“여러 왕의 덕을 입어 죽을 몸이 다시 살아 세상에 나가오니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녀들과도 정이 깊어 떠나기 섭섭하오나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기에 이별하고 가기는 하지마는 수궁의 귀하신 몸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직하고 돌아서니, 순식간에 꿈같이 인당수에 번듯 떠서 뚜렛이 수면을 영통케 하니 천신의 조화요 용왕의 신령이었다. ㉠ 바람이 분들 끄떡하며 비가 온들 떠내려 갈소냐. 오색 무지개가 꽃봉 속에 어리어 등덩실 떠 있을 적에, 남경 갔던 뱃사람들이 억 십만 금 이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인당수에 다다라서 배를 매고 제물을 깨끗이 차려 용왕에게 제를 지내면서 비는 말이,

“우리 일행 수십 명 몸에 재액을 막아 주시고 소망을 뜻한 대로 이루어 주셔서 용왕님의 넓으신 덕택을 한 잔 술로 정성을 드리오니, 어여빠 보셔서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제를 올린 뒤에 제물을 다시 차려 심 소저의 혼을 불러 슬픈 말로 위로한다.

“출천 효녀 심 소저는 늙으신 아버지 눈 뜨기를 위하여 젊은 나이에 죽기를 마다 않고 바닷속 외로운 혼이 되었으니 어찌 아니 가련하고 불쌍하리오. 우리 뱃사람들은 소저로 말미암아 장사에 이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소저의 영혼이야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올까? 가다가 도화동에 들어가서 소저의 아버지 살았는가 여부를 알아보고 가오리다. 한 잔 술로 위로하니 만일 아시거든 영혼은 이를 받으소서.”

제물을 풀고 눈물을 쏟고 나서, 한곳을 바라보니 한 송이 꽃봉

이 너른 바다 가운데 등덩실 떠 있으니 뱃사람들이 괴이히 여겨 저희들끼리 의논하기를,  
 “아마도 심 소저의 영혼이 꽃이 되어 났나 보다.”  
 가까이 가서 보니 과연 심 소저가 빠졌던 곳이어서 마음이 감동하여 꽃을 건져 내어 놓고 보니, 크기가 수레바퀴처럼 생겼고 두세 사람이 넉넉히 앉을 만했다.

(중략)

하루는 천자께서 당나라의 옛일을 본받아 궁녀에게 명하시어 화청지에 목욕하시고 친히 달을 따라 화단을 배회하시는데, 밝은 달은 뜰에 가득하고 산들바람 부는 중에 문득 강선화 봉오리가 흔들리며 가만히 벌어지고 무슨 소리 나는 듯했다. 천자께서 몸을 숨겨 가만히 살펴보니 ㉡ 예쁜 용녀가 얼굴을 반만 들어 꽃봉 밖으로 반만 내다보더니, 사람 자취 있음을 보고 도로 헤치고 들어갔다. 천자께서 보시고 문득 몸과 마음이 황홀하시어 의아한 생각이 들어 아무리 서 있어도 다시는 기척이 없었다. 가까이 가서 꽃봉을 가만히 벌리고 보시니 한 처녀와 두 미인이 있기에 천자 반기며 물으시기를,

“너희가 귀신이나 사람이냐?”

미인이 즉시 내려와 땅에 엎드려 여쭙기를,

“소녀는 남해 용궁 시녀이온데 소저를 모시고 세상으로 나왔다가 황제의 모습을 뵈오니 극히 황송하옵니다.”

하니 천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상제께서 좋은 인연을 보내신 것이로구나. 하늘이 내리신 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하시고, ‘배필을 정하리라.’ 결심하시어 혼인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태사관으로 하여금 날을 잡으라 하니 5월 5일 갑자일이었다. 소저를 황후로 봉하여 승상의 집으로 모신 뒤에 혼인날이 당하매 명하시기를,

“이러한 일은 천만고에 없는 일이니 예의범절을 특별히 마련하도록 하라.”

하시니 ㉢ 위엄이 이 세상에서 처음이요 천고에 더욱 없는 일이었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10.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판소리계 소설에는 민중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 ② 전기 소설에서는 현실 세계의 논리가 사건 전개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 ③ 18세기 적강형 영웅 소설은 이원적인 세계관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 ④ 기이성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고전 소설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 ⑤ 합리적 사고의 성장은 고전 소설에서 비현실적 요소가 약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11. '기이성'을 중심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금령이 굴러서 해룡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장면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기이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해룡이 요귀를 무찌르고 위협에 처한 이들을 구하는 장면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기이성이 구현된 장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에서 심 소저와 용궁 시녀가 함께 꽃봉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기이한 일로 받아들여지겠군.
- ④ (다)에서 아버지를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진 심 소저가 수궁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한 효성을 지닌 인물의 비현실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기이성을 느낄 수 있겠군.
- ⑤ (다)에서 심 소저가 중국 천자의 배필이 된 것은 이국정취가 인물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국정취를 기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겠군.

12. ㉠을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뱃사람들이 심 소저의 혼을 불러 위로하는 장면은 환상계의 존재와 현실계의 존재가 서로 교감하는 계기를 드러낸 것이다.
- ② 천자가 심 소저를 상제가 맺어 준 인연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현실계의 질서 속에 환상계의 질서가 귀속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③ 심 소저가 여덟 선녀와 이별하며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다고 말하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 ④ 수궁에 머물던 심 소저가 사해용왕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인당수에 번듯 떠오르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가 서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임을 나타낸 것이다.
- ⑤ 환상계에 머물던 심 소저가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현실계에서 천자와 극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장면은 환상계의 질서가 현실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1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이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게 하고, [B]는 인물이 집단적 요구에 저항하게 한다.
- ② [A]는 인물이 환상계로 가도록 이끌고, [B]는 인물이 현실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③ [A]는 인물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고, [B]는 인물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④ [A]는 인물이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도록 하고, [B]는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도전할 근거를 제공한다.
- ⑤ [A]는 인물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B]는 인물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14. <보기>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납치된 공주와 공주를 구출한 남주인공의 결연담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 신이담(神異譚)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를 사건 순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하국에 사는 요귀가 공주들을 납치하자 무사와 부하들이 공주들을 구하기 위해 뜻을 모음.
- (2) 무사의 꿈에 나타난 산신령의 도움으로 무사가 바구니를 타고 요귀가 있는 지하국에 진입함.
- (3) 무사가 요귀의 거처에 들어가고, 공주들이 직접 요귀의 약점인 비늘을 떼어내어 죽이는 데 성공함.
- (4) 무사가 공주들은 지상으로 올려 보내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무사는 지하 세계에 남게 됨.
- (5) 무사는 산신령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무사는 공주 중 한 명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됨.

이 설화는 우리의 고전 소설에서 다양한 변이 양상을 보여 주는데, '금령전'도 이것을 잘 보여 주는 작품입니다. (나)와 이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나)에서는 \_\_\_\_\_

- ① 남주인공이 찾아간 요귀의 거처에 공주가 있다는 설정은 유지되었습니다.
- ② 남주인공을 배신하여 새로운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③ 남주인공이 바구니를 타고 요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④ 남주인공이 요귀의 거처로 가도록 이끄는 초현실적 존재가 있다는 점은 유지되었습니다.
- ⑤ 남주인공이 요귀를 찾아가게 된 동기가 공주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유지되었습니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적대적인 대상이 출현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 ② ㉡: 갑자기 변화된 주변 상황과 비석에 새겨진 지명을 통해 새로 진입한 공간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외부 영향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대상의 모습을 통해 초월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인물의 연속되는 행동을 묘사하여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인물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태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빠른정답.**

2	3	4	3	1
4	1	3	5	2
5	5	2	5	4

**[1~3] (희곡) 이강백, 「봄날」**

「봄날」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갈등을 설화적 시공간 간의 사건으로 환원시킨 작품이다. 극의 초반부에서는 재산을 움켜쥐고 가족 구성원 위에 군림하는 탐욕스러운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동생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피는 장남, 병약한 막내, 그리고 아버지의 강요로 끊임없는 농사일에 내몰리는 차남부터 육남까지의 다섯 아들들로 구성된 가족 관계가 제시된다. 다섯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끊임없이 표출하지만 장남은 동생들을 달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여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다짐을 받아낸다. 그러나 다섯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재산을 모두 잃고 쇠약해진 아버지는 탐욕스러웠던 자신의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아들들을 그리워하고, 아들들 역시 아버지에게 맞섰던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한다. 작품의 제목인 ‘봄날’은 그 계절이 지나는 상징적 의미와 관련되어,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교체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낸다.

**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형님에겐 미안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라는 ‘차남’의 대사에서, ‘차남’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장남’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남’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장남’은 땅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아버지’에게 상기시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아까 약속하셨던 걸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땅을 나눠 주신다고 다짐하세요’와 같은 ‘장남’의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삼남’은 ‘이걸 봐! 백운사 스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잘 됐지?’라는 대사와 함께 젊어지는 약을 가지고 나온다. 이 약을 먹으면 젊어진다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다. ‘삼남’은 ‘백운사 스님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두 개의 대접을 아버지에게 권하고 있다. ④ ‘자식들’은 ‘아, 그건 내가 젊어진 뒤 다짐해도 늦진 않아’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걸 봐. 저러니깐 믿을 수 없지!’라며,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달아난 ‘봄’이 다 지나간 뒤의 여름, 쇠약해진 아버지는 ‘막내’, 그와 짝을 이루어 아이를 가진 ‘동녀’, 그리고 동녀의 ‘큰아주머니’인 ‘장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이해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라는 차남의 대사는, 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대사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에 대한 후회가 드러난다는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재산을 차지하고 ‘자식들’에게 농사일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보기>에서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아버지 세대’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는 곧 ‘아들 세대’, 즉 ‘자식들’에게 도전의 대상으로 규정된다. ② 젊어지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욕심은 <보기>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아버지 세대’의 모습에 상응하는 것으로, 결국 ‘아버지’의 이러한 욕심은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달아나는 극단적인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④ 여름날의 대청마루에 걸터앉은 ‘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은, ‘아들 세대’와의 갈등이 끝나고 기존에 지녔던 권력을 상실하게 된 ‘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표상한다. ⑤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을…….’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대사는, 세대 교체 과정이 계절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출제의도] 무대 공간 사용의 효과를 이해한다.**

⑥에서 ‘차남’이 읽는 ‘편지’는 ‘아버지’에게 보내고자 하지만 부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③에서 진행된 [9장]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한편 차남의 대사는 ③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발화되어, 관객들이 ‘차남’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⑥의 내용이 관객의 공감을 유도하면서 ③에서 진행되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③에서 진행되는 [9장]과 [10장]의 사건은 가족들의 고향집을 배경으로 각각 어느 봄과 뒤이은 여름에 일어난 일로 제시된다. ⑥의 등장인물들은 이 시공간을 떠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데, 이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거나 ‘고향집을 떠난 사람’과 같은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보내지는 못했다’는 ‘차남’의 대사는 자신의 행동을 극중 인물이 아닌 ③의 관객을 향해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⑥에서 제시된 편지 중 ‘그 봄날’에 ‘저희 자식들’은 조금했었고 ‘아버지’는 인색했었다는 구절과, ‘그 봄날이 아스란히 멀게만 느껴진다’는 구절에서, ‘차남’이 지닌 당시 사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③에서 ‘차남’은 ‘아버지’를 자신을 억압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지만, ⑥의 ‘차남’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4~6] (현대소설) 이청준 「소리의 빛」**

이 작품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와 함께 연작으로 구성된 「남도 사람」 중 한 편이다. 한의 자리를 찾아 헤매던 이복 오라비와 소리꾼 누이가 만나 하룻밤 소리판을 벌이지만, 서로 오누이임을 알면서도 그냥 헤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恨)의 생명력을 풀어 본 소설이다. 제시문의 중략 이전 부분은 오누이가 주막에서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고, 중략 이후 부분은 ‘사내’가 길을 떠나버린 뒤 ‘여자’가 주막에서 ‘천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으로, ‘오라비’에 대한 기

역과 지난밤 ‘오라비’와 장단을 맞추었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4.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중략 이전 부분은 사내(오라비)와 여자의 대화로 사내가 자신의 과거 사연을 오누이에게 전달하고 있고, 중략 이후 부분은 주막집 주인 천 씨와 여자의 대화로 여자가 자신의 과거 사연을 천 씨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상황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이 전달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중략 이전 부분과 중략 이후 부분은 모두 주막집에서의 대화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의 병렬적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서술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다른 기억을 대조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서술자는 중략 이전 부분에서는 오라비의 기억을 서술하고 있고,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천 씨와 여자의 대화 장면을 간단히 설명해 줄 뿐이다.

5. [출제의도] 작품의 사건을 파악한다.

중략 뒷부분의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단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서술을 통해 천 씨가 ‘사내(오라비)’를 ‘여자’의 오빠라고 알았다는 진술이 잘못된 이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천 씨의 ‘자네를 알아보기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떠나가고 말았던 말인가’에서 ‘여자’와 ‘사내(오라비)’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고 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라버니 소리가 목에까지 솟아오를 뻔한 것은 복체를 손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의 장단을 만났을 때였답니다’에서 여자가 ‘사내(오라비)’가 자신의 오빠임을 알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소년의 어머니는 땅덩이가 꺼져 내려앉는 듯한 길고도 무서운 복통 끝에 흡사 핏속에서 쏟아내듯 작은 살덩이 계집아이 형상 하나를 낳아놓고는 그날 새벽으로 그만 영영 눈을 감아 버린 것이었다’,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이 고을 저 고을로 소리를 하며 밥구걸을 다니고 있었을 때도’에서 여자가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서 길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천 씨의 말에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여자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에서 ‘햇덩이’는 ‘과정만 존재하는’ ‘예술(가)의 길’을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진술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예술(가)의 길’은 그것을 구성하는 과정만 있을 뿐 끝이 없다. 이는 ‘노인’이든 ‘사내’든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에는 절대적 경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오라비의 숨씨’와 ‘노인의 숨씨’는 모두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사내’는 과거에 보았던 ‘햇덩이’의 이미지를 찾아 ‘소리를 찾아다니’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예술(가)의 길’의 알레고리적 표현이며, 따라서 ‘소리’, 혹은 ‘햇덩이’로 상징되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사내’는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는 인물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을 해치는 것은 ‘소리’를 훼손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노인을 해칠 수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예술(가)의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수 밖에 없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리’의 ‘고통스런 얼굴’은 ‘소리’에 당고자 하는 ‘사내’의 ‘시련과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사내’가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을 떠났지만, ‘운명적으로 소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그가 예술가의 길을 떠날 수 없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7~9] (현대시 복합) (가) 고은, 「머슴 대길이」 / (나) 신경림, 「즐거운 나의 집」

(가) 고은, 「머슴 대길이」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머슴 대길이’에 대한 추억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대길이 아저씨’를 추억하며, 그가 자신에게 ‘불빛’이 되어 준 소중한 존재였음을 노래한다.

(나) 신경림, 「즐거운 나의 집」

자신이 나고 자란 근원적 공간인 ‘나의 집’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인 애착을 노래한 시이다. ‘나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화자는 어른이 되면서 ‘나의 집’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찾아 떠돌게 되지만, 결국 화자는 가족들과 함께한 유년의 따뜻했던 기억의 ‘그림’에 이끌려 ‘나의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었음을 노래한다.

7.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와 (나)에는 모두 과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② 화자가 소망하는 가상의 상황은 두 작품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대화체의 어조는 (가)에서 일부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자신의 일상적 삶을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은 두 작품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두 작품은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시의 내용을 감상한다.

‘대길이 아저씨’는 현실 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았으며,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현실 세계를 벗어난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동경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대길이 아저씨’에게 배운 한글을 통해 ‘세상에 눈떴다’는 것은 화자가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머슴이었던 ‘대길이 아저씨’에게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대길이 아저씨’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남하고 사는 세상’을 강조한 ‘대길이가 아저씨’의 말에서 이기적인 삶을 멀리하고자 했던 대길이가 아저씨의 가치관이 화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⑤ ‘대길이가 아저씨’가 화자에서 ‘불빛’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그가 화자에게 삶의 방향을 이끌어 준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

**9.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시를 감상한다.**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는 나의 이 집이 좋아졌다.’고 했으므로, ‘나의 집’으로 이끄는 힘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틀 속’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은 가족들이 머물던 공간이었으므로, 이곳을 오가며 놀이를 즐겼다는 것은 가족들이 감싸주는 공간에서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낸 화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② 화자가 ‘이 그림 속’에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한 것은 가족들의 여러 방을 오가면서 즐거운 놀이를 하며 보낸 유년의 따뜻한 기억의 ‘그림’이 화자에게 그대로 남아 본원적인 애착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외지로 떠든 것은 ‘이 틀 속’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화자의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는 화자가 ‘나의 집’을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근원적 공간인 그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10~15] (고전 소설) (가) 김일렬, ‘고전 소설에 나타난 기이성 연구’ / (나) 작자 미상, ‘금령전’ / (다) 작자 미상, ‘심청전’**

**(가) 김일렬, ‘고전 소설에 나타난 기이성 연구’**  
고전 소설 창작에 널리 이용되어 온 ‘기이성’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비현실성 등 기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와 함께 고전 소설의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 기이성이 구현되는 양상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17세기 소설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비현실성은 18세기에 이르러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비현실성을 환상계에 귀속시킴으로써 비현실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 간다. 한편 19세기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된 비현실성이 인물의 극단적 성격, 사건의 극적 전개 등과 함께 기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작자 미상, ‘금령전’**  
이 작품은 전기 소설로 ‘금방울전’이라고도 한다. 남주인공이 ‘금령’과 조력자의 도움으로 요귀를 퇴치하고, 요귀에게 잡혀간 공주를 구한다는 설화적 요소가 짙은 작품이다. 인물이 고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초현실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 요소가 많이 나타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다) 작자미상, ‘심청전’**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로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심청’의 지극한 효성을 잘 보여 준다. 현실계의 인물인

심청이 수궁계의 도움으로 천자와 인연을 맺고 이후 헤어졌던 아버지와 재회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현실계와 환상계의 이원적 구조가 잘 나타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1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 소설은 현실의 논리 같은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초현실적 존재의 활약을 극대화했다. 따라서 전기 소설에서 현실 세계의 논리가 사건 전개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4문단에서 판소리계 소설은 민중적인 가치를 담아 발전했다고 하였다. ③ (가)의 3문단에서 18세기 적강형 영웅 소설에서는 비현실성과 현실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원적 세계관이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④ (가)의 1문단에서 기이성은 새롭고 낯선 것에서 느껴지는 성질로서 당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고 했다. ⑤ (가)의 3문단에서 18세기에 이르면 합리적 사고와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초기 소설이 가지고 있던 비현실성의 요소가 점점 약해지게 되었다고 했다.

**11. [출제의도] 외재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이국정취가 기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심 소저’가 중국 천자의 배필이 된 것이 이국정취로 인한 인물의 성격 변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금방울인 ‘금령’이 해룡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장면은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경험적이고 환상적인 일이다. ② 해룡이 초현실적 존재인 요귀를 무찌르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하는 장면에는 비현실성의 요소가 잘 나타나 있다. ③ 환상계에 속한 용궁 시녀가 심 소저와 함께 꽃봉 안에서 등장해 현실계의 존재들과 만나는 모습은 비현실적 요소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④ 아버지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진 심 소저는 지극한 효성을 가진 인물이며, 그가 수궁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비현실적 요소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12. [출제의도] 외재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①은 비현실성이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됨으로써 이것이 사건의 극적 전개에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참고할 때, 환상계에 머물던 심 소저가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현실계의 천자와 극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사건이 환상계의 질서에 의해 현실계에서 극적으로 전개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을 환상계의 질서가 현실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 장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뱃사람들이 심 소저의 혼을 불러 위로하는 장면에서 환상계와 현실계의 교감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환상계의 존재와 현실계의 존재가 서로 교감하는 계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천자가 심 소저를 상제가 맺어준 인연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현실계의 질서 속에 환상계의 질서가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심 소저가 여덟 선녀와 이별하며 이

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다고 말하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의 개별적인 독립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환상계와 현실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수궁에 머물던 심 소저가 사해용왕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인당수에 번듯 떠오르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가 서로 연결된 세계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동일한 세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A]는 구름 속의 목소리가 해룡에게 금령을 구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으로, 해룡이 요귀가 있는 환상계로 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B]는 옥황상제가 사해용왕에게 심 소저를 인당수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는 장면으로, 심 소저가 수궁에서 현실계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B]가 인물에게 집단적 요구에 저항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③ [A]가 인물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해주는 것은 아니다. ④ [A]가 인물에게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⑤ [A]가 인물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14. [출제의도] 작품 간 비교를 통해 변이 양상을 파악한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모티브가 되는 설화로서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설화의 변이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설화에서는 남주인공이 요귀에게 잡혀간 공주를 구하기 위해 요귀를 찾아가지만, (나)의 남주인공인 해룡은 요귀에게 잡혀간 금령을 구하기 위해 요귀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설화에서 남주인공이 찾아 간 요귀의 거처에는 공주들이 잡혀 있었다. 또한 (나)에서도 요귀의 거처에는 잡혀 온 공주 일행이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설화와 (나) 모두 요귀의 거처에 공주가 있다는 설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설화에서는 남주인공을 배신하는 부하들로 인해 남주인공이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설화에서는 남주인공이 요귀가 있는 지하국에 진입하기 위해 바구니를 이용하지만, (나)에서는 남주인공이 바구니를 타고 요귀의 거처에 들어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설화에서는 초현실적 존재인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남주인공을 요귀의 거처로 인도하고, (나)에서는 구름 속에서 신이한 목소리가 들려 해룡이 요귀의 거처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남주인공이 요귀의 거처로 가도록 이끄는 초현실적 존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5.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㉔는 '용녀'가 꽃봉 밖의 상황을 살피다 인기척에 도로 꽃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것은 낮선 세계로 오게 된 용녀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이 장면에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인물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㉔는 해룡의 적대적 대상인 요귀가 갑자기 출현하는 장면으로, '벽력같은 소리', '주홍 같은 입'과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② ㉔는 '홀연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조요'해진 주변 상황과 비석에 새겨진 '남전산 봉래동'이라는 지명을 통해 새로 진입한 환상계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③ ㉔는 바람과 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대상의 모습을 통해 환상계에서 온 꽃봉의 초월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㉔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위엄 있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인물의 태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